

강관 생산업체, 정읍에 600억 투자

코센, 제3 산업단지 8000평 규모 공장 신축·생산라인 구축 50여명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이학수(오른쪽 네번째) 시장과 김광수 (주)코센 대표(다섯번째)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정읍공장 신축 투자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정읍시 제공>

스테인리스 강관 생산기업인 (주)코센이 정읍 제3산업단지에 공장 확장을 위한 증설 투자를 확정했다.

정읍시와 코센은 최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과 김광수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공장 신축 투자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코센은 제3 산업단지 내 2만6446㎡(약 8000여평) 부지에 총 600억 원을 투자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장 신축과 함께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올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공장 신축과 리모델링을 마무리한 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에 들어간다.

코센은 회사 운영에 따른 50여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투자 이행과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시는 투자보조금 지원과 인허가 절차 진행 등 행정적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코센은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강관은 반도체 생산시설과 석유화학 생산시

설 건립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코센은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에 강관을 납품하고 있다.

지난 3월 철강 제품 생산기업인 (주)코스틸이 인수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읍에 투자를 결정했으며 투자 후 매출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 등 어려운 시기에 정읍시에 투자를 결정해준 코센 김

광수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코센이 우리 정읍을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센은 정읍시와 입주 투자협약(MOU)을 기념하며, 정읍시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올해도 1천만원... 정읍시의원 13년째 기부

이복형 시의원

"제가 어렵게 살아보아서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조금 알아요.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정읍시의원 이복형(62) 의원이 13년째 기부를 이어와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부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웃 사랑에 대한 소신이 있던 그는 고향인 정읍시 고부면에 1000만원을 쾌척했다. 이렇게 매년 겨울에 1000만원씩을 전달한 게 13년째를 맞았다.

이 의원은 올해도 고부면에 1천만원을 기탁했다. 누적 기부 액수는 1억3000만원에 달한다.

젊은 시절 가난을 경험한 그는 우리 사회에 끼니



와 난방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한파에 폭설 피해까지 더해져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

로도 추위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이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구석구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광희 고부면장은 "기탁받은 성금은 전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내년 예산 1769억원 '역대 최대'

스마트 관광도시 등 '탄력'

남원시가 내년 국가예산을 역대 최대인 1769억원 확보해 시가 추진중인 각종 현안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가 확보한 2023년 국가예산은 총 3614억원으로 전년대비 407억원(13%)이 증가했다. 이 중 시가 중점 확보 대상사업으로 확보한 국비는 1769억원으로, 올해 대비 64억원(3.7%)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남원시가 각 분야별 확보한 중점사업 중 문화예술·관광분야에서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2023년 국비 35억원(총사업비 105억원)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30억원(79억원)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R&D) 72억원(279억원) 등 33개 사업 356억원을 확보해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는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 5억원(190억원) ▲2023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3억원(30억원) ▲웃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1억원(150억원) 등 총 4개 사업 20억원을 확보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스 건립 5억원(490억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6억원(12억원) 등 7개 사업 184억원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의 지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단계 2억원을 증액 반영 시켰다.

미래농업 분야에서는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총사업비 97억원) ▲농촌공간정비사업 3억 8000만원(50억원) ▲스마트 APC 지원사업 18억원(36억원) 등을 확보했다.

정주 환경 분야에서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총사업비 489억원) ▲국지도 37호선(인월-아영) 2차로 확장 및 개량사업 2억원(453억원) ▲대곡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1억원(406억원) ▲주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8000만원(396억원) 등을 확보해 시민 정주 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선8기 첫 국가예산 확보인 만큼 남원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력의 결과로 확보한 국가예산이 당면한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남원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좋은 일자리 창출위원회' 출범

양질의 일자리·정책 발굴

고창군의 '좋은 일자리 창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 정주인구를 늘리고 산업의 양질화, 고도화로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민선 8기 심덕섭 군수의 의지가 반영된 군수직속 기구다. 위원장인 심덕섭 군수 등 당연직 4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7명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2년 임기인 위원들은 앞으로 고창군의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

의하게 된다. 최근 열린 첫 회의에선 ▲지속가능한 활력 산업 일자리 창출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 창출 ▲품격있는 역사문화 관광일자리 창출 등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쪽에선 일손이 부족하고, 한쪽에선 일자리가 없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양질의 기업 발굴과 청년 인재 연계를 강화해 청년과 기업 모두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정읍시 최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전북도의 '2022년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난해 우수기관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며 2024년 사업비가 증액되는 재정지원도 받게 됐다.

평가에서 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 향상에 기여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집 홍보와 서비스를 제공한 점 역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용률과 예산집행률, 현장점검, 부정수급 예방과 제공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받았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존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해 정읍시의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복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민·관 '고창 방문의 해' 성공 '맞손'



고창군과 지역 관광업계가 '2023 세계유산도시 방문의 해'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군-관광업계 업무협약

고창군과 지역 관광업계가 '2023 세계유산도시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고창군은 최근 서울시니어스타워(주) 웰파크시티, 상하농원(유), 고창컨트리클럽, 골프존카운티선운, 석정힐CC, 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은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공동마케팅 추진 등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기관들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한 상

호협력 ▲기관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운영 ▲연계 관광상품 판매증진 등을 노력한다.

군은 이번 MOU와 더불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조직위원회도 출범했다.

조직위원회는 의회, 교육청, 경찰, 농협, 기업인협의회 등 민·산·관으로 구성되어 방문의 해 추진 관련 사항을 자문하고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방문의 해 운영기반을 마련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만이 갖고 있는(유네스코 세계 5관광)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해 글로벌적인 세계문화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